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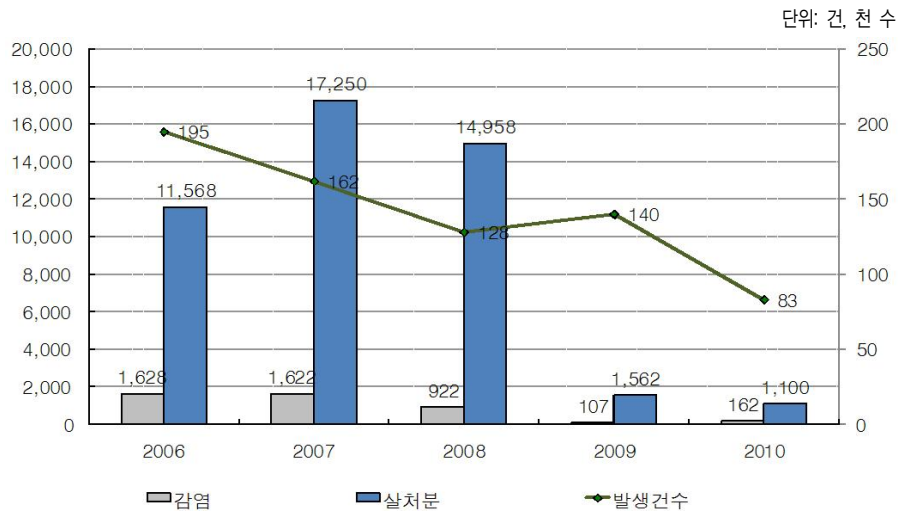
지난 10월 15일 충남 예산의 한 오리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낮은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역 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차원에서 해당 농장과 닭, 오리 3천여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도 10월 14일 홋카이도 와카나이시 오누마에서 회수한 야생 오리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가 검출되었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현재까지 사망한 야생 조류는 확인되지 않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야생 조류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사람에서도 드물게 감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는지는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의심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감염된 후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다. 특히 철새들의 이동으로 인해 동절기에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이번 달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제공하는 전세계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동향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1 세계 구제역 발병 추이



자료: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www.oie.int/wahis).

2008년까지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지역 수와 발생 건수는 2009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개체수는 2009년에 비해 증가한 점, 그리고 발생국가 수 역시 작년 16개국에서 18개국으로 증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표 1 세계 구제역 발병 현황(2010년)

단위: 건, 마리

발생국가	상태	발생건수	의심사례	감염	폐사	살처분
방글라데시	계속	354	191,659	18,004	18,004	173,655
부탄	해결	5	3,558	24	18	2,970
불가리아	해결	1	0	1	1	0
캄보디아	해결	2	1,167	32,024	17,345	264
중국	해결	1	0	170	170	0
이집트	계속	1,086	443,682	49,752	49,746	393,015
홍콩	해결	1	0	1	1	0
인도	해결	5	200,481	1,866	1,866	149,072
인도네시아	계속	6	54,000	873	803	3,135
이스라엘	해결	1	43,115	1,002	594	42,521
라오스	해결	1	1,004	44	44	960
몽골	해결	1	0	26	26	0
미얀마	해결	3	5,481	407	407	5,074
네팔	해결	7	17,646	1,048	1,048	16,600
루마니아	해결	2	127	99	75	52
러시아	해결	2	0	368	367	1
스페인	해결	1	308,640	30,000	30,000	278,640
베트남	계속	271	63,262	25,877	21,314	34,454
계			1,333,822	161,586	141,829	1,100,413

자료: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www.oie.int/wahis).

2010년의 발병 현황을 보면 이집트, 방글라데시, 베트남은 특히 조류인플루엔자가 극심하며, 대체로 발병하는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백신 원조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병 사례가 없으나, 전국 시도 지자체별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서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 윤종열, 민자혜